

호스피스 교육이 대학생의 임종돌봄 태도, 호스피스 지식 및 죽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

윤매옥*

논문초록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호스피스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 후 임종돌봄 태도와 호스피스 지식 및 죽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실험설계이다. 연구대상은 J지역에 소재한 일개 기독교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81명으로 (실험군 41명, 대조군 40명), 호스피스 교육은 1학기 매 주 1회씩 150분간 총 14주간에 걸쳐서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4년 3월 3일부터 6월 10일까지였으며, 자료 분석은 SPSS/PC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호스피스 교육 중재 후 실험군의 임종돌봄 태도, 호스피스지식, 죽음에 대한 태도는 대조군보다 각각 유의하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t=5.77, p=.000$; $t=4.86, p=.000$; $t=4.05, p=.000$). 둘째, 중재 전·후 실험군의 임종돌봄 태도, 호스피스지식, 죽음에 대한 태도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였다($t=7.69, p=.000$; $t=13.14, p=.000$; $t=11.24, p=.000$). 본 연구결과를 볼 때 호스피스 교육은 대학생의 임종돌봄 태도와 호스피스 지식 및 죽음에 대한 태도를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 교육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공된 호스피스 교육은 대학생이 호스피스 대상자를 이해하고 도울 수 있으며,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대학교육과정에서 다양한 대학생들에게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

주제어: 호스피스, 교육, 학생, 죽음의 태도

* 한일장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2014년 11월 17일 접수, 12월 10일 최종수정, 12월 14일 게재확정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과제를 부여받게 되며, 죽음은 하나의 인격체로서 겪게 되는 사건인 동시에 인간으로서 행하는 결정적인 최고의 행위이기도 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윤매옥, 2009: 513). 최근 우리나라는 핵가족의 증가로 인한 가정에서의 죽음학습의 부재, 현대의료에 있어 질병치료중심에서 벗어난 인간의 소외화, 의학의 발달로 인한 무의미한 생명연장 및 존엄성 상실, 인구의 고령화, 질병구조와 죽음유형의 변화, 그리고 진정한 웰빙의 추구 등은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를 다각도에서 조명하게 한다(조계화·이현지, 2008: 230).

특히 20대 초반의 대학 시기는 청소년후기 또는 성인초기에 해당하며 발달단계상의 특성으로 신체적, 심리·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와 생애주기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혼란을 경험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조계화·이현지, 2008: 229). 부모로부터의 독립, 내면화된 도덕성, 직업선택 등의 발달과업을 성취하고 자기정체감을 확립하고자 하나, 이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때 정체감혼미에 빠지기 쉽고 자살충동과 같은 부정적인 죽음의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조계화·이현지, 2008: 230). 또한 다변화적 사회가운데에서 정체감의 혼돈은 스트레스와 갈등상황에 빠지게 되며 무력감과 우울상태에서 삶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죽음을 선택하게 된다(Donald et al., 2006: 87-96). 그러므로 대학생들의 죽음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긍정적으로 전환하며 죽음이 단순한 개별적 사건을 넘어 사회적 현상이라는 맥락 안에서 죽음을 공유하는 책임(조계화·이현지, 2008: 235)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보다는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간과할 수 없는 과제로 함께 생각해야 하겠다. 최근 생활수준과 함께 삶의 질 향상에 따라 죽음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의료인 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호스피스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김명숙, 2007: 1-3).

선행연구에서 보면 대부분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 장소와 임종돌봄을 받기 원하는 곳은 병원과 호스피스 시설이 아닌 가정을 선택하였으며, 본인이나 가족이 말

기질환일 경우 호스피스간호를 잘 받기를 희망하고 있다(김숙남 외, 2011: 461; 이영은 외, 2012: 284). 이것은 가정과 같은 친숙한 환경에서 존엄성과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고통 없이 평화로운 임종돌봄을 받고자함을 설명해주고 있으며, 이러한 죽음을 앞둔 환자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삶의 기간 동안 의미를 발견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호스피스간호를 제시할 수 있겠다(최순옥·김숙남, 2003: 329). 우리나라의 호스피스 교육은 1996년부터 가톨릭대학교에서 Hospice/Palliative Care 전문교육을 1년 과정으로 시작하였고, 2004년부터는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양성을 위한 대학원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에서 호스피스 제공자를 위한 단기간의 교육프로그램과(김수현 외, 2006: 69), 대학의 교육철학에 따라 소수의 간호대학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제는 의료관련학과 뿐 아니라 대학 정규교육과정에 포함시켜 전체 학부과정에서부터 호스피스철학을 비롯한 삶과 죽음의 의미 및 돌봄의 진정한 가치를 습득할 수 있도록 준비시킬 필요가 있다.

죽음에 대한 태도는 자신의 생활과 생애를 통해 받은 자극과 경험들을 토대로 축적되고 변화되어 개인의 환경에 영향을 주므로(Kao & Lusk, 1997: 438-443), 삶의 전 과정은 죽음태도의 중요한 요소로 규정지을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학생에게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죽음관 정립을 위한 교육의 차원에서,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깨닫고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대학생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교육을 실시하여 호스피스에 대한 지식과 임종돌봄 및 죽음에 대한 태도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새로운 삶의 가치를 마련하는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병원 외에도 가정이나 시설 그리고 종교기관에서 임종상황에 직면해 있는 대상자와 만성질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호스피스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도울 수 있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복지사회를 위한 국민들의 노력과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가고 있는 추세이어서 전문 인력 외에도 자원봉사활동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반화되지 못한 이유는 적절한 모델의 부재, 일반인의 의식부족 및 봉사자들의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대한 지식부족이 주요원인으로 고려되고 있다. 그러므로 말기환자를 위한 호스피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자원봉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또한 절실히 요구된다(조현 외, 2008: 84). 따라서 급증하는 말기질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의료학계 외에 일반 대학교육과정에서도 호스피스교육의 체계적인 운영이 요구되며, 교육대상자들이 지각하는 다양한 영향변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대학생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교육의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Barrere et al., 2008; Mallory, 2003)과 의과대학생 및 건강돌봄제공자(Hegedus et al., 2008)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외연구가 있었고, 국내연구는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조현 외, 2008)와 의과대학생(김현경 외, 2012), 그리고 일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숙남 외, 2011; 이영은 외, 2012; 백설향 외, 2001)가 있었으며 일반대학생을 포함하여 실시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인생의 전환기로 자아정체감 확립과 삶의 목표설정이 중요한 시기에 있는 대학생에게 있어서 호스피스 교육은 자신의 올바른 죽음관의 확립과 삶의 위기와 문제들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며 인간의 고통과 슬픔치유를 돕는 전인적 돌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호스피스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 효과를 파악하여 대학생들을 위한 호스피스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대학생에게 호스피스 교육을 제공한 후 그 효과를 규명하여 대학생들을 위한 호스피스교육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호스피스 교육이 대학생의 임종돌봄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 둘째, 호스피스 교육이 대학생의 호스피스 지식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 셋째, 호스피스 교육이 대학생의 죽음의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교육을 제공한 후 임종돌봄 태도와 호스피스 지식 및 죽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실험설계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전북지역에 위치한 일개 대학교에 등록된 학생으로서 교양수업을 수강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편의추출로 선정되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4년 3월 3일부터 6월 10일까지 이루어졌다. 먼저 대상자들에게 본 연구의 취지와 호스피스교육의 내용을 소개하였다. 대상자 보호를 위한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 진행과정 및 교육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연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대상자들에게 연구진행 과정 중 언제라도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또한 설문작성은 익명처리 됨을 알려주었고, 연구 참여 동의서에 모든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참여하기를 동의하는 자에 한하여 서면동의서를 받았으며, 설문에 대한 응답은 익명으로 처리됨을 알려주었다.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2 program을 이용하여 t-test에 필요한 최소 표본크기를 구한결과 유의수준 .05, 검정력 .90, 효과크기 .80을 기준으로 했을 때, 표본 수가 그룹별 약 30%로 예상하여 각 그룹별로 40명 이상을 선정하기로 하였다. 최종적으로 '호스피스 교육' 교양과목에 수강 신청한 실험군과 일반 교양수업을 수강하는 학생으로 연구에 참여하기를 희망한 자로서 호스피스 과목을 수강 신청하지 않은 대조군은 각각 43명이 모집되었으며, 연구 진행과정 중에 5명이 탈락하여 실험군 41명, 대조군 40명으로 총 81명이 최종 연구대상자로 포함되었다.

3. 연구 도구

1) 임종돌봄 태도

임종돌봄 태도란 임종환자와 그 가족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 돌봄에 대해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인식과 감정 및 의욕을 말한다(이미라·이원희, 2001: 58). 본 도구는 프로멜트(Frommelt, 1991: 37-43)가 개발한 Frommelt Attitude Toward Care of The Dying(FATCOD) Scale을 이미라·이원희(2001: 60-61)가 수정하여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3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중복되는 내용의 문항을 삭제하고 25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은 3점 척도로 ‘그렇다’는 3점, ‘보통이다’는 2점, ‘그렇지 않다’는 1점으로 배정하였고,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말기환자 돌봄에 대한 태도에 대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이미라·이원희(2001: 67)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78$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79$ 였다.

2) 호스피스 지식

호스피스 지식이란 호스피스에 대한 철학과 원칙, 통증과 기타 증상 관리, 심리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돌봄 등에 대한 얌의 정도를 말한다(Ross et al., 1996). 본 척도는 로스 등(Ross et al., 1996: 126-137)이 개발한 Palliative Care Quiz for Nursing(PCQN)도구를 김 등(Kim et al., 2011: 222-229)이 우리 실정에 맞게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20문항으로 각 문항에 대하여 예, 아니오 로 답하도록 되어있다. 총 20문항으로 정답인 경우 1점, 오답인 경우 0점으로 최저 0점부터 20점까지의 범위를 갖는 것으로 각 문항의 점수를 합한 총점이 높을수록 호스피스에 대한 지식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죽음에 대한 태도

죽음에 대한 태도란 죽음에 대한 인간의 행동을 일정한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조직 화되고 지속되는 일련의 신념과 감정으로 어떤 상황이나 사물에 대한 준비 태세로서의 마음가짐이다. 죽음에 대한 태도는 토슨과 포웰(Thorson and Powell, 1988: 691-701)이 개발한 Death Orientation 도구를 박석춘(1992: 73)이 번안하고 김정희 (2006: 16)가 수정·보완한 총 20개 문항의 4점 척도로 사용하였다. 긍정적인 문항 8개

문항과 부정적인 문항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정문항은 역 환산 처리하였으며, 점수범위는 20점에서 8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당시 Cronbach's $\alpha = .83$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1$ 였다.

4. 자료 수집 방법 및 절차

1) 호스피스 교육 구성

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는 사전에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자격을 갖추었으며, 호스피스 간호사로 10년간의 임상경험을 쌓았고, 대학에서 호스피스 정규과목을 교육하면서, 호스피스 연구를 통해 준비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호스피스 교육은 H대학교 교육과정의 정규교과목으로 교양 선택과목이다. 호스피스 교육은 호스피스와 완화간호, 삶과 죽음에 대한 이해, 암과 말기질환, 신체적 돌봄, 심리사회적 돌봄, 영적 돌봄, 호스피스환자의 전인적 평가, 호스피스 제공자의 스트레스, 사별간호, 임종돌봄, 호스피스간호에서의 윤리적 관점, 가정 호스피스와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동영상, 유언서 작성 등의 주제로 구성하였다<표1>. 본 교육은 호스피스 총론을 토대로 선행연구와 문헌을 참고로 하였으며, 본 연구자의 호스피스 임상경험과 교육 및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학생의 수준에 적합한 교육내용을 구성하였다. 호스피스 교육에 대한 선행문헌자료를 보면 김숙남 외(2011: 460)의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10회기 20시간, 이영은 외(2012: 282)의 연구에서는 7회기 28시간을 실시하였으며, 이와 유사하게 대학생을 대상으로 죽음준비교육을 제공한 김은희·이은주(2009: 3)는 5회기 14시간, 프로멜트(1991: 37-43)는 15회기 45시간으로 각각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교육내용은 인간의 신체적, 정신 사회적, 영적인 측면을 포함하여 삶과 죽음의 개념을 총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고, 1학기 14주로 매주 150분씩 총 35시간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대학생의 정규교양 선택과목으로 지속적인 교육진행과 주제별 강의, 조별토론 및 발표, 그리고 요약정리로 학습효과의 극대화를 고려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호스피스 간호교육의 내용은 말기환자와 가족의 고통과 슬픔을 이해하면서 인간의 고통과 슬픔치유를 돕는 전인적 돌봄 교육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추구를 동기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구성하였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N=81)

회기	주제	교육내용	진행방법
1	호스피스와 완화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정 소개 • 자기 소개 • 호스피스의 개요 • 다학문적 팀 접근 • 호스피스 표준 	강의 토론 발표
2	삶과 죽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과 죽음 이해 • 죽음에 대한 태도와 반응 • 유언서 작성 	강의 토론 발표
3	암과 말기 질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암의 이해 • 말기 암환자 • 총체적 통증 및 관리 	강의 토론 발표
4	신체적 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적 증상과 관리 • 에이즈 이해와 관리 	강의 토론
5	심리사회적 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사회적 요구와 돌봄 • 함께 하기, 경청 • 의사소통 	강의 토론 발표
6	영적 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적 요구 및 사정 • 영적 돌봄 및 평가 • 종교적 접근 	강의 토론 발표
7	전인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력 • 신체적 및 심리사회적 증상 • 의사결정능력 • 영적 요구 • 죽음계획 예측 	강의 토론 발표
8	중간고사		
9	스트레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트레스의 개념 • 호스피스 돌봄 제공자의 소진 및 스트레스 • 스트레스의 증상 및 관리 	강의 토론
10	사별 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별가족 돌봄 • 사별과정 및 돌봄 제공자의 역할 • 사별과정 적응에 영향 미치는 요인 	강의 토론 발표
11	임종 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종 증상 • 임종 돌봄 	강의 토론

회기	주제	교육내용	진행방법
12	호스피스에서의 윤리적 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윤리 • 안락사 • 무의미한 치료 중단 • 호스피스 환자의 권리 	강의 토론 발표
13	가정호스피스 및 자원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호스피스의 개요 및 필요성 •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 자원봉사자의 역할과 태도 	강의 토론
14	비디오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선화 필 무렵 	시청각 토론
15	기말고사 및 유언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언서 작성 및 나누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편지쓰기) • 서로 축복하기 	강의 토론 발표

2) 교육 진행

호스피스 교육은 1학기 매 주 1회씩 150분간 총 14주간에 걸쳐서 진행하였고, 수업 진행과정은 5단계로 적용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지난 수업주제와 내용을 요약 점검하고, 현재수업을 위한 준비단계로 학습목표와 학습내용에 대한 퀴즈 및 간단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주요학습단계로서 학습자들은 본 주제와 관련된 학습내용의 중요한 개념들을 학습하는 단계로, 강의와 질문 및 피드백을 통한 교수와 학생의 상호작용으로 학습이 이루어진다. 세 번째 단계는 학습내용 이해도 확인단계로 팀 별 토론으로 학습을 통해 개념을 습득한 학습의 내용을 적절하게 학습했는지 팀별 토론을 하게하고 팀별 점검을 통해 확인하고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네 번째 단계는 개념적용 문제해결단계로서, 학습을 통해 파악한 개념들을 중심으로 학습자에게 실제상황에서 접하게 되는 문제의 사례를 주고 각 팀별 토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 번째 단계는 요약 발표 및 학습정리단계로서, 팀 별 문제학습에 대해 각 팀원들의 상호협력 관계에서 도출된 최종결과를 발표하게하고 학습정리를 위해 미니강의를 하였다. 팀별 학습에 대해 실시하기 1주전에 오리엔테이션 기간을 가졌다. 학생들에게 팀 학습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고 교육프로그램은 15회기로 이루어졌으나 8회기째는 중간고사 기간으로 실제 제공된 횟수는 14회기 운영되었다. 강의 자료는 모두 파워포인트로 구성하였고, 강의실내에서 6-7명의 소집단이 마주보며 앉게 하였으며 기록지를 나눠준 후 조별대표를 선정하여 주제별로 토론을 이끌도록 하였다. 조별 대표는 돌아가

면서 하도록 지도하였으며 각 집단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발표기회를 준 후 교수가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 임종돌봄 태도, 호스피스 지식 및 죽음에 대한 태도의 동질성은 χ^2 -test, t-test로 검증하였다. 호스피스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중재 전·후 차이는 paired t-test를 사용하였고, 중재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집단 간의 차이에 대해서는 t-test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

본 연구 대상자는 총 81명으로 실험군 41명, 대조군 40명이었다. 평균연령은 21.09 ± 6.96 세이며, 성별은 여학생이 71명(85.7%)을 차지하였다. 호스피스를 알게 된 경로는 학교 교과과정이 53명(65.4%)으로 가장 많았고, 매스컴이 20명(24.7%), 병원이 2명(2.5%) 순이었다. 가까운 사람의 임종경험은 '있다'가 45명(55.6%), 없음이 36명(44.4%)이었고, 친인척 중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아본 경험은 '없다'가 76명(93.8%)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필요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의향에서 '있다'가 77명(95.1%)이었고, 호스피스 필요성은 '필요하다(반드시 필요함과 필요함을 포함함)'가 78명(96.3%)을 차지했다. 이상과 같이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두 집단은 동질한 집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2>.

〈표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 (N=81)

특성	구분	실험군 (n=41) n(%)	대조군 (n=40) n(%)	Total (n=81) n(%)	χ^2	p
성별	남	5(12.2)	5(12.5)	10(12.3)	0.00	1.000
	여	36(87.8)	35(87.5)	71(85.7)		
연령 (평균±표준편차)		21.10 ±7.50	21.08 ±6.46	21.09 ±6.96	5.71	0.892
종교	있음	30(73.2)	28(71.4)	58(72.3)	0.11	0.947
	없음	11(26.8)	12(28.6)	23(27.7)		
호스피스를 알게 된 경로	학교	25(61.0)	28(70.0)	53(65.4)	0.96	0.812
	병원	1(2.4)	1(2.5)	2(2.5)		
	대중매체	12(29.3)	8(20.0)	20(24.7)		
	기타	3(7.3)	3(7.5)	6(7.4)		
친인척의 죽음 경험	예	22(53.7)	23(57.5)	45(55.6)	0.12	0.824
	아니오	19(46.3)	17(42.5)	36(44.4)		
친인척 중 호스피스 서비스 받은 유무	예	2(4.9)	3(7.5)	5(6.2)	0.24	0.675
	아니오	39(95.1)	37(92.5)	76(93.8)		
필요시 호스피스 서비스 받을 의향	예	40(97.6)	37(92.5)	77(95.1)	1.11	0.359
	아니오	1(2.4)	3(7.5)	4(4.9)		
호스피스의 필요성	매우 필요하다	21(51.2)	15(37.5)	36(44.4)	4.08	0.130
	필요하다	20(48.8)	22(55.0)	42(51.9)		
	모르겠다	0	3(7.5)	3(3.7)		

2. 임종돌봄 태도, 호스피스 지식, 죽음에 대한 태도에서의 동질성 검증

본 연구 대상자의 중재 전 전체 임종돌봄 태도에 대한 평균점수는 실험군 2.67점, 대조군 2.66점으로, 두 집단 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0.37$, $p=.708$). 전체 호스피스 지식에 대한 평균 점수는 실험군 0.56점, 대조군 0.61점으로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1.30$, $p=.197$). 그리고 죽음에 대한 태도에 대한 평균 점수는 실험군 2.80점, 대조군 2.82점으로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0.18$, $p=.860$). 그러므로 실험군과 대조군의 중재 전 임종돌봄 태도, 호스피스 지식 및 죽음에 대한

태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은 동질한 집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3>.

<표 3> 임종돌봄 태도, 호스피스 지식, 죽음에 대한 태도에서의 동질성 검증 (N=81)

변수	실험군 (n=41)	대조군 (n=40)	t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임종돌봄태도	2.67±0.19	2.66±0.22	0.37	0.708
호스피스 지식	0.56±0.11	0.61±0.18	1.30	0.197
죽음에 대한 태도	2.80±0.48	2.82±0.34	0.18	0.860

3. 호스피스교육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1) 임종돌봄 태도에 대한 효과

중재 후 대상자의 임종돌봄 태도를 비교해본 결과 실험군의 임종돌봄 태도가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t=5.77, p=.000$) <표4>. 실험군의 임종돌봄 태도는 중재 후($M=2.86, SD=.09$)에 유의하게 상승하여 본 연구에서 제공된 중재의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t=7.69, p=.000$), 대조군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의하게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t=-2.80, p=.008$) <표5>. 따라서 호스피스교육 프로그램은 대학생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임종돌봄 태도를 향상시킴을 알 수 있었다.

2) 호스피스 지식의 효과

중재 후 대상자의 호스피스 지식을 비교해 본 결과 실험군의 호스피스 지식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t=4.86, p=.000$) <표4>. 실험군의 호스피스 지식은 중재 후($M=0.75, SD=.10$)에 유의하게 상승하여 본 연구에서 제공된 중재의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t=-13.14, p=.000$), 대조군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의하게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t=-2.11, p=.041$) <표5>. 따라서 호스피스 교육 프로그램은 대학생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호스피스 지식을 향상시킴을 알 수 있었다.

3) 죽음에 대한 태도의 효과

중재 후 대상자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비교해 본 결과 실험군의 죽음에 대한 태도가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t=4.05, p=.000$) <표4>. 실험군의 죽음에 대한 태도는 중재 후($M=3.18, SD=.44$)에 유의하게 높아져 본 연구에서 제공된 중재의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t=11.24, p=.000$), 대조군은 시간이 경과 하여도 죽음에 대한 태도가 유의하게 변화하지 않았다($t=-.90, p=.376$) <표5>. 따라서 호스피스교육 프로그램은 대학생의 죽음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죽음에 대한 태도를 향상시킴을 알 수 있었다.

<표 4> 임종돌봄 태도, 호스피스 지식, 죽음에 대한 태도에 대한 효과검증 (N=81)

변수	실험군 (n=41)	대조군 (n=40)	t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임종돌봄태도	2.86±0.09	2.53±0.35	5.77	.000
호스피스 지식	0.75±0.10	0.58±0.19	4.86	.000
죽음에 대한 태도	3.18±0.44	2.79±0.43	4.05	.000

<표 5> 교육 전 후의 임종돌봄 태도, 호스피스 지식, 죽음에 대한 태도에 효과검증 (N=81)

변수		교육 전	교육 후	t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임종돌봄태도	실험군	2.67±0.19	2.86±0.09	7.69	.000
	대조군	2.66±0.22	2.53±0.35	-2.80	0.008
호스피스 지식	실험군	0.56±0.11	0.75±0.10	13.14	.000
	대조군	0.61±0.18	0.58±0.19	-2.11	0.041
죽음에 대한 태도	실험군	2.80±0.48	3.18±0.44	11.24	.000
	대조군	2.82±0.34	2.79±0.43	-0.90	0.376

IV. 논의 및 결론

호스피스 교육의 목적은 대학생들이 말기환자와 가족을 돕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말기 돌봄과 죽음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함과 동시에 자신의 삶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호스피스 교육을 대학생들에게 적용하여 그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향후 대학생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교육의 적용과 임종 돌봄 태도와 호스피스의 지식 및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함과 동시에 자신의 삶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주 1회 150분씩 14주로 총 35시간의 호스피스 교육을 대학생에게 적용하여 임종돌봄 태도와 호스피스의 지식 및 죽음에 대한 태도의 효과를 파악하였다.

본 호스피스 교육은 죽음을 앞둔 환자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동안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일개대학교의 교육과정 중 교양 선택과목으로서 처음으로 개설된 과목이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호스피스교육은 말기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총체적인 돌봄을 학습하는 것으로 의료관련학과만이 아닌 비관련학과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확대적용 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 해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호스피스 교육을 실시한 후 임종돌봄 태도가 증가하는지를 조사해본 결과 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t=5.77, P=.000$). 또한 실험군의 임종돌봄 태도는 중재 전보다 중재 후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t=7.69, P=.000$).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10회의 호스피스·완화간호교육을 제공하여 임종간호태도가 향상된 김숙남 등(2011: 461)의 연구와 6주 동안 제공한 완화간호교육이 임종환자 돌봄에 대한 태도가 증가되었다는 말로리(Mallory, 2003: 305-312)의 연구, 그리고 바레르 등(Barrere et al., 2008: 1-1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간호대학생에게 죽음교육을 제공한 조혜진·김은심(2005: 169)의 연구결과에서 임종간호 태도가 유의하게 증가된 것과 간호사에게 죽음교육을 실시한 후 임종간호태도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보고한 프로펠트(1991: 37-43)의 연구와는 일맥상통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호스피스 교육이 대상자의 임종 돌봄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대는 갈수록 암 발병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치매환자와 외상환자, 각종 만성질환

의 악화로 말기환자를 접할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때에 환자와 가족을 위한 전인적 돌봄으로 다학문적 팀접근이 필요한 상태에서 간호대학만이 아닌 이와 관련된 학과에서도 호스피스를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신체 증상을 포함한 심리 사회적, 영적 측면의 돌봄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가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환자 수에 비해 간호 인력부족으로 간호사 면허소지자인 유희간호 인력까지도 단기간의 교육을 거쳐 간호현장에 복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간호인력 부족현상은 치료적이고, 회복 가능한 대상자에게 더 많은 집중과 신체적인 부분에 치우친 간호로 제공될 수 있으므로 말기환자의 총체적 돌봄에는 미치지 못하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고 판단된다. 죽음의 과정에 개입되는 첨단의학기술은 자연스러운 생의 마지막과정을 방해하고 인간의 존엄성마저 상실되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화를 마련하고 있지만(김숙남 외, 2011: 452), 교육체계와 전문인력이 열악한 환경이다. 그러므로 대학의 교육과정에서 호스피스 교육을 통하여 임종과정을 이해하고 다각적으로 환자와 가족을 돌보는 일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프로그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호스피스 지식을 살펴보면,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며($t=4.86, P=.000$), 호스피스 교육은 대학생의 호스피스에 대한 지식을 유의미하게 증진시켰다($t=13.14, P=.000$). 이는 49명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주 1회 4시간 총 7주간의 호스피스교육을 실시하여 호스피스 지식이 증가되었다는 이영은 외(2012: 283)의 연구결과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2일 동안 9시간의 임종간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호스피스 지식이 증가되었다는 김숙남 외(2011: 222-229)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를 볼 때 호스피스는 신체적, 정신·사회적, 영적인 측면에서의 총체적 접근이 전제되는 가운데서 돌봄이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호스피스교육은 의료관련 전공분야에서만 아닌 비의료계 전공 학생을 포함하여 다학문적 접근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 해주고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대조군은 중재 후 임종돌봄 태도와($t=-2.80, P=.008$), 호스피스 지식이 중재 전보다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t=-2.11, P=.041$),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할 수는 없으나, 대상자들이 대학 입학 후 학기 적응과 학업에 대한 부담, 기말고사, 그리고 개인적인 생활 스트레스 등의 이유로 임종돌봄 태도 및 호스피스 지식에 대한 관심이나 집중도가 낮아졌을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학기 초에 처음으로 접근한 설문내

용을 작성할 때는 관심과 집중도가 높았으나, 학기 말에 동일한 내용의 설문작성을 할 때는 학기 중에 수강했던 과목과는 관련이 적은 내용이며, 미이수 내용을 학기 말에 다시 접했을 때 익숙하지 않은 개념으로 여겨졌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대조군에 속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후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결과를 재확인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호스피스 교육이 죽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t=4.05$, $p=.000$). 두 군 간의 중재 전 후 비교에서는 실험군은 중재 후에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t=11.24$, $p=.000$), 대조군은 시간이 경과하여도 죽음에 대한 태도가 향상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t=-0.90$, $p=.376$). 이는 간호 대학생에게 주 4시간씩 7주 동안 호스피스 교육을 실시한 이영은 외(2012: 284)의 연구에서 죽음에 대한 태도를 증진시켰으며, 47명의 간호대학생에게 2시간씩 16주 동안 호스피스 간호교육을 제공한 백설향 등(2001: 360)의 연구 결과 죽음의식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낸 것과 일치하였다. 또한 41명의 의대생과 127명의 건강돌봄 제공자에게 임종돌봄 교육을 제공한 연구(Hegedus et al., 2008: 264-269)와 동일한 결과로 임종간호의 태도와 임종환자 돌봄의 지식이 향상되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되는데 효과적임을 보고하였다. 비록 호스피스 교육은 아니지만 이와 유사하게 16주간 가상강좌를 통하여 대학생에게 죽음에 대한 강의를 제공한 조계화 외(2007: 447)의 연구에서 죽음에 대한 태도가 유의하게 긍정적으로 변화되었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5일간 죽음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 결과 죽음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고 보고한 김숙남 외(2005: 148)의 연구결과와 비슷하였다. 한편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4회기의 죽음교육을 실시한 피셔(Fischer, 1995)의 연구결과와 간호대학생에게 죽음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조혜진·김은심(2005: 169)의 죽음불안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결과는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즉, 호스피스 교육은 대학생에 있어서 죽음에 대한 태도를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대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김은희·이은주(2009: 6)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150분씩 5주 동안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죽음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콜맨(Coleman, 1983)은 응급의료인에게 죽음준비교육을 제공한 후 죽음불안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대상자에게 얼마나 적합한 교육내용과 방법, 그리고 교육기간인지

와 작용변수 등을 검증 해볼 필요가 있으며, 대상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죽음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습득은 죽음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며(Mallory, 2003: 305-312; 조혜진·김은심, 2005: 170), 임종에 직면한 환자들을 접하거나 죽음을 목격하는 등 죽음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자신의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고(Thorson and Powell, 1988: 691-701), 나아가서 임상현장실습 경험을 통해 죽음에 대해 더욱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 이렇듯 죽음에 대한 태도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축적되는 것이므로 호스피스 교육은 단순히 이론교육에 머물기보다는 현장실습교육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삶과 죽음에 대한 개인적인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의 의미 있는 삶의 방법을 학습하는데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수업으로만 운영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실습교육기간과 교육회수 및 교육방법에 있어서의 효과성을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호스피스 교육은 죽음의 이해와 사후세계, 유서쓰기 등의 죽음준비교육을 포함하여 죽음직전에 있는 임종환자와 그 가족을 돌보는 것까지 포함하여 자신과 타인의 삶을 의미있게 살 수 있도록 학습하는 교육이다. 그러므로 대학생에게 죽음준비를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는 자와 그 가족까지도 돌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대학생에게 강의와 토론, 발표를 통한 호스피스 교육은 임종돌봄 태도와 호스피스의 지식 및 죽음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 교육으로 확인하였다. 따라서 삶과 죽음의 이해, 말기환자와 가족이 경험하는 총체적인 고통 및 돌봄을 위한 지식, 사별과 비탄 및 애도 등의 정상적인 극복과 치유를 돕고, 인간의 이해와 삶의 의미를 찾도록 하는 호스피스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연구 대상자를 일개 대학에 속한 대학생만을 편의 추출하였으며, 또한 일부 보건의료계열 신입학 학생과 비의료계 전공 학생을 포함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볼 때 호스피스 교육은 대학생의 임종돌봄 태도와 호스피스 지식 및 죽음에 대한 태도를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 교육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공된 호스피스 교육이 죽음에 대한 건강한 태도를 가지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위하여 한국적 사고와 문화에 적합한 호스피스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대학교육과정에서 다양한 대학생들에게 확대 적용이 시급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생들에게 올바른 임종돌봄 태도와 죽음에 대한 태도 형성을 위한 효율적 교육환경의 조성과 우리문화에 적합한 호스피스교육과정 개발을 제언한다.

둘째, 연구대상자를 다양하게 표집하여 전공별 임종돌봄 태도와 호스피스지식 및 죽음태도 영향요인 규명을 위한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본 호스피스 교육을 적용한 실험그룹과 적용하지 않은 통제그룹을 비교분석하여 그 효과성을 탐색하는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김명숙 (2007).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일반인의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과 삶의 의미 비교.”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 김수현 외 (2006). “의사를 위한 호스피스교육 개발.” 『한국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지』. 9(2). 67-76.
- 김숙남 외 (2011). “의미요법이 포함된 호스피스·완화 간호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임종간호태도와 생의 의미에 미치는 효과.”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7(3). 456-465.
- 김숙남 외 (2005). “죽음교육이 대학생의 죽음교육에 대한 태도와 생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 『보건교육 건강증진학회지』. 22(2). 141-153.
- 김은희·이은주 (2009).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와 죽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간호학회지』. 39(1). 1-9.
- 김정희 (2006).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영적안녕과 죽음에 대한 태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 김현경 외 (2012). “말기환자 돌봄 교육 후 의과대학생의 인식과 태도 변화.” 『한국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지』. 15(1). 30-35.
- 박석춘 (1992).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죽음의식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2(1). 68-80.
- 백설향 외 (2001). “간호대학생의 죽음에 대한 의식 변화 연구: 호스피스 간호 학습 전·후 비교.” 『기본간호학회지』. 8(3). 357-365.
- 윤매옥 (2009). “죽음준비 교육프로그램이 성인의 죽음불안, 영적안녕 및 삶의 의미에 미치는 효과.”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0(4). 513-521.
- 이미라·이원희 (2001). “호스피스 자원 봉사자들의 말기 환자 돌봄에 대한 태도.”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지』. 4(1). 57-67.
- 이영은 외 (2012). “호스피스 교육이 간호대학생의 호스피스 지식과 죽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6(2). 280-288.
- 조계화·이현지 (2008). “대학생의 자아효능감이 우울과 만족도, 죽음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간호학회지』. 38(2). 229-237.
- 조계화 외 (2007). “죽음에 대한 가상강좌 개발과 적용.” 『대한간호학회지』. 37(4). 442-452.
- 조현 외 (2008).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를 위한 웹기반 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분석.” 『보건교육·보건증진학회지』. 25(4). 83-92.
- 조혜진·김은심 (2005). “죽음교육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죽음불안과 임종간호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호스피스 완화의료학회지』. 8(2). 163-172.
- 최순옥·김숙남 (2003). “호스피스 간호에서의 의미요법 적용을 위한 생의 의미 고찰.” 『한국간호교육학회지』. 9(2). 329-339.
- Barrere, C. C., Durkin, A., & LaCoursiere, S. (2008). “The Influence of End-of-Life Education on Attitude of Nursing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Scholarship*. 5(1). 1-18.

- Coleman, W. T. (1983). "The Effect of an Instructional Module on Death and Dying on the Death Anxiety of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Traine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urdue University, Indiana-polis IN.
- Donald, M., Dower, J., Correa-VI., & Jones, M. (2006).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r Medically Serious Suicide Attempts: a Comparison of Hospital-Based with Population-Based Samples of Young Adults."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40. 87-96.
- Fischer M. (1995). "The Effect of a Multimethod Death Education Curricular on Death Anxiety and Attitudes toward Aging."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University of Arcansas, Kansas.
- Frommelt, K. H. (1991). "The Effects of Death of Education on Nurse' Attitudes toward Caring for Terminally Ill Persons and Their Families." *American Journal of Hospice & Palliative Care* 8(5). 37-43.
- Hegedus, K., Zana, A., & Szabó, G. (2008). "Effect of End of Life Education on Medical Students' and Health Care Workers' Death Attitude." *Journal of Palliative Medicine* 22(3). 264-269.
- Kao, S. F., & Lusk, B. (1997). "Attitudes of Asian and American Graduate Nursing Students towards Death and Dying."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34. 438-443.
- Kim, H. S., Kim, B. H., Yu, S. J., Kim, S. H., Park, S. H., Choi, S.E., et al. (2011). "The Effect of an End-of-Life Nursing Education Consortium Course on Nurses' Knowledge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in Korea." *Journal of Hospice & Palliative Nursing*. 13(4). 222-229.
- Mallory, J. L. (2003). "The Impact of a Palliative Care Educational Component on Attitudes Toward Care of the Dying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19(5). 305-312.
- Ross, M. M., McDonald, B., & McGuinness, J. (1996). "The Palliative Care Quiz for Nursing(PCQN): the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to Measure Nurse's Knowledge of Palliative Car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3(1). 126-137.
- Thorson, J. A., & Powell, F. C. (1988). "Elements of Death Anxiety and Meaning of Deat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4(5). 691-701.

ABSTRACT

Effect of Hospice Education on Attitude toward End-of-Life Care, Knowledge of Hospice and Attitude toward Death of University Students

Me-Ok Yoon (Hanil University &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 of hospice education on attitude toward end-of-life care, knowledge of hospice and attitude toward death of university students. This study used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Subjects of this study included 81 students(41 students for the experimental and 40 students for the control group). The hospice education was provided 150 min. a week for 14 sessions from March to June, 2014. The data were analyzed with t-test, χ^2 -test, paired t-test with SPSS/PC 18.0 program. Levels of attitude toward end-of-life care, knowledge of hospice and attitude toward death significantly increased in the experimental group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after the hospice educat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hospice education was effective in developing positive attitude toward end-of-life care, knowledge of hospice and attitude toward death.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broadly apply this education or related programs to university students.

Key words: Hospice, Education, Students, Attitude toward death

